

# “계파청산·정권창출 위해 ‘뚝심정치’ 발휘”

## 새정치 전대 호남주자 동행취재 - 주승용 최고위원 후보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경선 구도도 혼전 양상이다. 주승용, 전병헌, 정청래 후보 등이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이목희, 유승섭, 박우섭, 오영식, 문병호 후보가 남는 두 명의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특히 전남 주자인 주승용 후보가 1위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막판 레이스를 펼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위로 선출된 최고위원은 정치적 중립감이 대표 다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전남지사 후보 경선 패배로 정치부심하던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 정치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광주일보는 29일 동행 취재를 통해 주승용 후보의 메시지와 각오 등을 키워드로 조명했다.

### 도의원·군수·시장 등 ‘무소속 신화’ 장본인 신뢰·소통 리더십 바탕 강력 야당 재건 주력 전국 당원들 호응 ‘주승용 1위’ 기대감 높아져

◇1위=호남과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유일한 주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내 계파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호남과 지방의 목소리를 힘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1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돼야 한다는 논리다. 1인 2표제라는 점에서 호남 표심이 결정할 수 있고 온건·합리적 리더십에 대한 당원들의 호응이 이어지는 등 막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국 순회를 하면서 계파 패권주의에 맞서는 ‘주승용’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 선두권에서 한 발 앞서나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막판 지지가 조금만 더 결집된다면 1위 최고위원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감성=화려한 공약이나 구호보다는 지난 25년간의 정치 역정을 소탈하게 털어 놓으면서 당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낙선의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국회의원 당선 한 달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회화를 담은 고백은 당심을 적시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로 주 후보의 얘기를 듣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는 당원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전라도 사투리가 여기 저기 묻어 나오는 탈 탈한 ‘촌놈 행보’도 당원들의 마음을 열고 있다.

◇여유=막판 레이스에 조급할 수도 있지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천천히 좌고우면하지 않고 뚝심 있게 걸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 기초의원 의원들과의 접촉 면을 넓히는 등 밑바닥 조직부터 다지고 있다. SNS 등을 통해 재외동포 대의원까지 경기는 꼼꼼함도 보이고 있다. 각종 행사장에서 소개 받은 당원들에게는 전화를 통해 다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루에 최소 100명 이상의 당원들과 통화하고 있다.

◇인지도=당내 비주류로 지난해 사무총장을 지낸 것 외에는 그동안 주요 당직을 맡지 못한다. 뒤는 정치를 하지 않아 전국적 인지도는 높지 않다. 하지만 ‘진심과 신뢰’의 이미지가 바람을 타면서 인지도의 장벽을 극복했다는 주장이다. 차츰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호남 출신 수도권 대의원들의 지지가 결집되는 흐름이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경선 당일, 호남과 호남 출신 수도권 대의원



29일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전국 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주승용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들의 표심이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리더십=중앙 정치 무대에서 리더십을 검증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무소속 신화’로 대응하고 있다. 과거 DJ(김대중 전 대통령) 바람 속에서도 무소속으로 도의원, 군수, 시장에 당선된 것은 민심과 소통하는 리더십이 검증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밑바닥부터 차근 차근 쌓아온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을 토대로 당을 재건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호남=이번 지도부 경선은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당의 뿌리인 호남 민심의 결집을 강조하고 있다.

호남 민심의 결집과 참여만이 당의 병폐인 계파주의를 타파하고 혁신을 통한 수권 정당

## 검찰, 권의원 수사

김용관 전 서울지방검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수사외압 의혹을 터뜨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 을-전 서서경철서 수사과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당연립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법원이 그의

## 대법, 대선 개입 의혹 김용관 무죄 확정

### ‘외압 폭로’ 권은희 의원 “참담하고 답답”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 중에는 동료 경찰관들의 반대 진술이나 주변 정황뿐만 아니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로서는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를 입증하는 일만 남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권 의원과 함께 일한 수사경찰서 직원들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이들도 수사 진행상황을 잘못 알고서 보고했다면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의원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서울청의 부당한 수사개입으로 지난

2012년 12월16일에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허위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제가 증언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며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하여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건이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중이고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댓글활동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 서울대병원, 이완구 차남 병역의혹 공개검증

### “무릎 전방십자인대 수술 확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 서울대병원에서 실시된 공개 검증에서 서울대병원 측은 29일 “MRI 및 X선 촬영 결과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무릎관절 사이에 위치한 섬유성 연골) 파열에 대한 봉합수술이 이뤄진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명철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이 후보자 차남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개검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부 달 붙은 곳도 있지만 수술 전보다 어느 정도는 치료된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단 등이 입회한 가운데 X선에 이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공개검증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5년 12월20일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은 이후 국내에서 정형신체검사를 받고 5급 판정으로 병역이 면제된 바 있는데, 이번 촬영을 통해 수술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여야는 오는 2월 9~10일 양일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박상욱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11일 열고, 국무총리와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발족

### “하반기 진보정당 창당 목표”

시민사회와 학계의 진보인사로 구성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모임’(이하 국민모임)이 29일 신당추진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모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신당추진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중심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대중적 진보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야권교체에 기초한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포괄적(빅텐트) 진보정당의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모임은 또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반국민적 통치기구가 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독주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존권 수호의지를 버린 지 오래”라면서 “신당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제일의 과제로 삼고, 생명·평등·생태·평화·통일·민주·복지·자주 등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신당 합류를 선언한 정동영·임종인 전 의원, 정의당, 여타 신당 추진세력들에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신당추진위는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수호 전 민주노동당 총무위원, 신학철 화백이 공동 추진위원장,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손호철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창당 시기를 묻는 질문에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일정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재보궐 선거 참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지만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 정도와 후보를 찾을 수 있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당추진위는 원탁회의 추진과 동시에 2월 설 연휴 전 창당주비위원회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또 내달 5일 광주에서 3차 토론회를 열고 10일 전후로는 ‘각계 1050인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고,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 회원	재혼
<b>남</b>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b>여</b>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타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b>남</b>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b>여</b>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은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